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0

나리타(成田)로 돌아와서는 다시 각지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짬을 내어 후쿠시마(福島)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도쿄 오쿠타마(東京奥多摩)에서의 목회와 생활도 틈이 나는 시간을 쪼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많은 과제들을 대처하며 생활을 꾸려나간 것일까요?

몸을 피하면서 또는 여행하면서 그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적절히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떻게 체제를 유지해가며 전도와 선교 활동을 전개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나가사키(長崎), 히로시마(廣島)에서 원폭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애를 통해 그 체험을 증언하듯이 지금은 체르노빌과 같이 유명해진 후쿠시마(福島)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간증해야만 한다는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쿄(東京)를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주거와 교회건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게 될지, 필요한 자금은 마련되겠는지, 또한 오륙십 명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집을 잃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주장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서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 날마다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진 재해 이후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는 초고속의 회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안정되리라 봅니다만 격동의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격동의 연속입니다. 이 드라마의 'THE END' 는 있겠는지요. 설마 없다고는 하지 않겠지요.

많은 분들이 경제면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마 후쿠시마(福島)로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전 성도님 수의 4 분의 1 정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왠지 폐하고 도망가는 무사의 심경입니다. 본 진영을 잃고 육칠십 명이 모여 달아나서는 각자의 살 길을 찾아 거처를 정하므로 점차 그 수가 줄어 남은 인원인 사오십 명이 원래 장소 가까운 곳에 모여 가까스로 진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날, 성도님들을 모아 함께 하루 하루를 살아가며 여행해 온 것이 옳았던 일이었는지요?

뭐가 뭔지조차 모르게 되어가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화급을 다루는 그 때의 이상사태속에서는 차분히 되짚어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랑상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쳤다고 말할 틈도 없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 암에 걸린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다'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달려야만 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행 도중으로 길 중간에 와있습니다.

화제를 바꾸어, 지진 재해 이후로 목사, 부목사, 전도사 모두 무보수였습니다. 성도님들
거의가 모두 집을 잃었고 실직되었으며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로 월급의 반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75 퍼센트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사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교회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도 매달 40 만엔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진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해도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남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빈사상태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울어지기도 하며, 반쪽 엔진만으로 비행하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고 날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나름대로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씩씩하게 날아 오른다거나, 원래대로 복원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습니다. 이윽고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때때로 보여주시는 전망을 바라보며,,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긴급 교회건축을 위한 지원집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송구스럽습니다만 목회는 틈이 나는 시간을 쪼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짬을 내어서 도쿄(東京)⇔후쿠시마(福島)간을 분주히 왕복하고 있습니다. 분주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나름대로 리듬이 생겨 좋은 습관도 들고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주히 돌아다니며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보일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무엇인가 보이면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루함이 존재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함께.

도쿄 중앙선에서 10 월 15 일(토)
사토 아키라(佐藤彰)